

University Library iTour

올바니 대학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도서관 안내 파드 캐스팅을 통해 올바니 대학 도서관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청취자들께서는 도서관 안을 직접 둘러보시면서 엠프리 쓰리 플레이어를 통해 이 파드 캐스팅을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둘러보시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실 때는 플레이어의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이동을 하신 후 계속해서 재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투어 안내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왼쪽 편을 보시면 작은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투어 안내문이 있습니다. 먼저 그 안내문을 한 장 들고 오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어 안내문에 있는 지도에서 숫자 1 이 표시된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셔야 할 위치는 메인 라이브러리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Group Study” 라는 팻말 아래입니다.

올바니 대학 도서관은 여러분의 연구와 학습을 위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미국 내 100 대 연구 도서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곳을 ‘메인 라이브러리’ 라고 부릅니다. 올바니 대학에는 3 개의 도서관이 있는 데 메인 라이브러리가 그 중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이 곳에는 인문학과 사회 과학관련 도서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도서관은 캠퍼스 센터 근처에 있는 사이언스 라이브러리와 다운타운 캠퍼스에 있는 듀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오피스가 있는 빌딩이 바로 사이언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룹 스터디 라는 팻말 아래에서 서서 서쪽, 그러니까 캠퍼스 중앙의 분수가 있는 방향을 을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룹 스터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책 뿐만 아니라 씨디나 DVD 도 빌리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씨디는 그룹 스터디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DVD 는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circulation desk 의 오른쪽에 보실 수 있습니다. 씨디는 14 일간 빌리실 수 있는데요. 클래식과 재즈 그리고 각국의 전통 음악이나 뮤지컬 씨디 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디비디 컬렉션에는 세계 각국에서 만들어진 예술 영화들도 있고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 포터 시리즈와 같은 대중적인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섹스피어의 작품을 비롯한 각종 연극 공연 실황을 녹화한 디비디들도 있습니다. 디비디는 3일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에서 왼쪽 그러니까 도서관 출입구 쪽의 반대편을 보시면 짙은 브라운 색의 책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과 가장 가까운 책장들에는 최근 도서관에 입수된 신간들이 진열되어 있고 창가 쪽의 책장에는 최근 출간된 대중적인 소설이나 논픽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소파 근처에 있는 컴퓨터들에는 마이크로 소프트 오피스를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내의 전체 공간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셔서 편안하게 이용하십시오.

신간 도서들이 전시된 책장을 등지고 맞은편을 보시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부 간행 문서들이 있는 서가가 보입니다. 정부 간행 문서들은 도서관의 책 분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자료를 찾으시기 힘들면 참고 봉사대의 사서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Circulation desk 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대학에서 그런 것 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학생증, SUNY Card 가 도서 대출증을 결합합니다. 학부 학생들은 50 권까지 한꺼번에 대출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30 일 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이용자가 그 책을 찾지 않는다면 11 번까지 대출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넘긴 책들에 대해서는 매일 15 센트식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노트북 컴퓨터도 대여해 줍니다. 4 시간 단위로 대출하실 수 있고요, 노트북은 도서관에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circulation desk 에 문의해 주십시오.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들께서 수업에 필요한 책을 지정해서 도서관에서 따로 보관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reserve book 이라고 합니다. 이 리저브 북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circulation desk 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책에 따라서 3 시간, 24 시간 혹은 48 시간 동안만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연체가 되면 한 시간에 3 달러식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자 이제 지도에서 2 번 위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피 쓰리 플레이어를 잠시 멈추시고 circulation desk 의 반대편에 2 라고 쓰여진 위치로 이동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South Stairs 라고 쓰인 표지 앞에서 참고 봉사대를 마주 보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왼쪽에 컴퓨터들이 많이 놓인 곳을 Electronic resources section 이라고 부르는 데요. 이곳은 동료들과 같이 그룹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며 작업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도서관 내에는 몇 곳에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컴퓨터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시고 프린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프린터로 가서서 프린터에 연결된 컴퓨터에 여러분의 수니 카드를 인식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컴퓨터 화면에 현재 진행 중인 프린트 작업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프린터 명령을 내린 그 컴퓨터의 번호를 찾아 다시 프린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프린트 요금은 한 장당 10 센트입니다. 만일 수니 카드에 잔고가 없으면 circulation desk 의 양쪽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 금액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최소 1 달러에서 부터 추가가 가능합니다. 혹시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1 달러를 지불하고 임시 카드를 구입한 후 다시 그 카드에 금액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면에 보고 계시는 곳이 참고 봉사대입니다. Reference Desk 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늘 전문 사서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하고 여러분의 도서관 이용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참고 봉사대에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아침 9 시에서 밤 9 시까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시작 시간은 동일하지만 오후 5 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2 시에서 5 시 일요일은 12 시에서 9 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여름 학기나 방학 중에는 일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일 도서관을 방문하실 수 없으면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링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 오는 이용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과 함께 참고 봉사대에서는 Customized Search Service.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누구나 받으실 수 있지만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예약하시면 전문 사서와 일대일로 마주 앉아 여러분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각종의 정보들을 찾고 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한 번도 학술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해 보신 적이 없거나 연구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예약하실 분들은 레퍼런스 데스크의 사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제 레퍼런스 데스크의 뒤에 있는 서가로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는 사전이나 문헌 목록 같은 참고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책을 한 권 뽑아서 보시면 청구 기호가 R - E - F 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 책이 레퍼런스 컬렉션에 속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책들은 미국의 대

학 도서관들이 많이 사용하는 미의회 도서관, Library of Congress 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듀이 십진 분류법과는 약간 다르지만 주제별로 책을 분류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책들은 도서관 밖으로 대출을 할 수 없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하셔야 합니다. 이 공간에는 일반적인 언어 사전이나 백과 사전 뿐만 아니라 각종 연감이나 과목별 사전, 취업 안내 등의 자료도 있습니다. 리포트 숙제를 받고 마땅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곳에 오셔서 자료들을 찾아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레퍼런스 데스크의 사서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지도의 3 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 지나오신 south stairs 를 통해 지하로 내려가셔서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보라색으로 벽이 칠해진 방이 보입니다. 이제 그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플레이어를 멈추시고 이동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사방의 벽이 보라색으로 칠해진 방에 와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보라색과 노란색은 올바니 대학의 상징 색깔입니다. 이상해 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 지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공간 역시 그룹으로 모여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특히 시험기간에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곳입니다. 이 방의 양 쪽 끝에 있는 복도를 따라 가시면 몇 개의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 강의실에서는 도서관에서 개설하는 각종 강의들이 이루어집니다.

보라색 방에 들어오셔서 왼쪽을 보시면 정기간행물실이 있습니다. Periodical room 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는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각종 학술지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학술지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연구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학술지들은 논문을 심기에 앞서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판된 논문들을 peer-reviewed article 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잡지에 실린 기사를 보다는 훨씬 학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관심이 있는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의 학술 정보 데이터 베이스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들은 도서관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구요. 도서관 내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 베이스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논문의 전체 내용, 즉,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만일 풀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학술지의 제목을 먼저 우리 도서관 목록에서 찾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 그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다면 여기 지하에 있는 정기간행

물 실에 오셔서 논문을 찾아 보고 또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 층에서 보신 레퍼런스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정기간행물들도 의회 도서관 분류법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들은 두 곳에 나누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방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최근에 출판된 정기간행물들을 따로 모아놓은 방이 있습니다. current periodicals section 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출판된 각종 정기간행물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에서 4 번이 적힌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정기간행물실 안에서 안내 데스크를 마주 보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에 복사기들이 보이실 겁니다. 복사비 역시 한 장당 10 센트인데 프린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수니 카드를 이용해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 쪽에는 현금을 이용할 수 있는 복사기도 있습니다.

자 이에 안내 데스크의 왼쪽 뒷편에 있는 서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책들에는 P-E-R 로 시작하는 청구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위 층에 있는 레퍼런스 섹션의 책들이 ref 로 시작하던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Periodicals 라는 의미입니다. 이 공간에는 매우 다양한 잡지와 학술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물 중에는 100년 이상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저널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소장중인 New York Times 는 185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 학과에서 아주 훌륭한 1차 자료로 사용합니다.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오래된 정기간행물들은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이크로 필름을 보기 위한 리더와 필름 스캐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정기간행물실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자 이제 지도 위의 5 번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보라색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방을 그대로 통과하여 인터랙티브 미디어 센터라고 적힌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방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current periodicals room. 이라고 쓰인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은 current periodicals room 안에서 창문을 마주 보고 서 계시십시오. 이 공간에는 최근 1년 이내에 출판된 정기간행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정기간행물들을 자주 살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자주 오셔서 Journal of American History 나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같은 학술지들을 자주 살펴보시면 현재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최신의 연구 동향들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른 쪽에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신문들이 있는데요 저희 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 중에는 뉴욕 시티에서 발간되는 한국 신문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 상의 6 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current periodicals room 을 나오셔서 Interactive Media Center 라는 안내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Interactive Media Center 라고 쓰인 표지판 아래에서 정기 간행물 실쪽을 보고 서계십니다. 좀 전에 들어가셨던 Current Periodicals room 과 Interactive Media Center 사이에는 티비와 비디오 그리고 디비디 플레이어를 보실 수있을 겁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시청각 자료들을 보고 싶을 때는 이곳에 오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줄여서 아이엠씨라고 부르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센터는 각 종의 멀티 미디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멀티 미디어 자료를 제작하기 위한 각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하시면 그런 장비들을 대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녹음기나 마이크등은 물론 이고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도 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미디어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들에는 멀티미디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맥킨토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구요.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한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각 종 강의들 입니다.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드림위버나 포토샵, 플래쉬나 프리미어 그리고 아이 무비나 아이 디비디등 이들 소프트 웨어의 사용을 가르치는 워크샵을 자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웹페이지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 센터로 들어가시면 워크샵에 대한 안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센터의 뒷 편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책들을 따로 모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들이지만 필요하시다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이용해 보십시오.

자 이제 투어의 마지막 순서로 이동하겠습니다. 보라색 방으로 돌아가셔서 정기간행물실 방향으로 이동하시다 보면 왼쪽에 복도가 보입니다. 그 복도로 들어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2 층으로 이동해서 지도에 President's Reading Room 이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가 보겠습니다. 물론 계단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도서관의 2 층에 있는 President's Reading Room 에 와 계십니다. 높은 천정과 폭신한 카페트가 깔린 바닥, 고급스런 의자와 책상이 있는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가 더 잘 될것 같죠?

도서관의 2 층과 3 층에는 도서관의 일반 장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올바니 대학 도서관에는 2 백만권 이상의 장서가 있는데요 메인 라이브러리에만 150 만권 정도의 장서가 있습니다. 적지 않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온라인 목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온라인 목록을 미네르바라고 부르는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시면 링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미네르바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찾아 보실 수 있구요. 필요하신 책을 발견하셨으면 call number 즉, 청구 기호를 클릭해 보십시오. 현재 도서관에 있는지 아니면 대출 중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레퍼런스 데스크의 사서들에게 물어 보십시오.그리고 책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청구 기호의 책들을 보관하고 있는 서가로 가야 합니다. 각 층의 계단에는 서가와 청구 기호가 표기된 지도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공간의 벽에는 많은 교수님들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매년 학교에서 수상하는 각종 펠로우십이나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신 분들인데 도서관 출입구를 등지고 서서 정면에 보이는 긴 벽에서 맨 오른 쪽에 걸린 사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 중에는 몇 년전 Distinguished Professorship 을 받으신 역사학과의 한국인 교수 김성복 선생님의 사진도 있습니다.

도서관 투어가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소개해서 어리둥절 하시죠?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차 하나하나 아시게 될 겁니다.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언제든지 도서관을 이용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레퍼런스 데스크의 사서들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도와드릴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